

#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

안 선 경 · 양 속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Psychedelic Image Expressed in Costume

Seon Kyoung Ahn · Suk Hee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8. 11. 10 접수)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situational similarity of psychedelic expressed in the mid-1960s with culture including costume in the end of 20th century. So this study is composed of psychedelic concept and the comparison of temporal background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psychedelia in the 1960s and 1990s, and relationship with Art-Nouveau which has originated psychedelia and psychedelic image including mysticism, play, illusionism, and narcissism.

The New Psychedelic revival of the early 1980s came at a time when, as in the mid-1960s, the world's attentions were firmly focused on British youth. The same could be said of the mid-1990s when 'BritPop' once again has international appeal and the result has been a kind of New New Psychedelic revival, with all manner of British youth styles from the 1960s blended together. The swirling patterns, hallucinogenic colors and space-aged designs of the psychedelics have become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cocktail of youth, sex and optimism

**Key words:** Psychedelic, Mysticism, Play, Illusionism, Narcissism:

사이키델릭, 신비성, 유희성, 착시성, 자아도취성

## I. 서 론

복식은 착용자 개인의 내면 뿐 아니라 동시대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상징적 기호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세기의 전환점이 아닌 새로운 밀레니엄(2000년)을 맞는 현대사회는 전사회 체제가 끊임없이 해결해야할 다양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하나의 단일한 신념을 상실한 채 다원화 및 다

극화 현상을 맞고 있다. 이러한 세기말의 시대 분위기는 평화, 건강, 환경, 국경 그리고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소용돌이와 폭발하는 듯한 세계에 의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우울함은 현실을 도피하고 망각해 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게 한다. 그리하여 그 방편으로 마약이나 혹은 그 대체물인 미술, 음악, 춤, 복식 등을 통해 환각적·신비적 체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1960년대 중반 하위문화

에 정신적 기저로 자리잡고 있던 싸이키델릭(Psychedelic) 이미지로부터 상황적 유사성을 밝히고 현실을 재조명 해 보며 20세기말에 나타나는 복식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현상들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싸이키델릭의 용어가 생겨난 1960년대 싸이키델릭의 개념과 시대적 배경,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싸이키델릭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싸이키델릭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아르누보(Art-Nouveau)와의 상관성을 고찰하며, 복식에 나타난 싸이키델릭 이미지를 1960년대와 1990년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외 저서, 논문 등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이론적 결과를 표와 시각자료로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싸이키델릭의 개념과 출현 배경

기존사회로부터 도피적 수단으로 등장한 싸이키델릭(Psychedelic)은 마약문화와 대체사회의 장식에 술로서 '호흡', '영혼', '인간정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syche'와 '시각적'이라는 'delos'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로 잘 알려진 작가 Aldous Huxley가 LSD실험을 통해 체험한 환각상태를 묘사한데서 나온 말이다. '정신이 보인다'는 말 그대로 LSD는 특히 시각적 착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것은 1970년대 말까지 장식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확립되었다. 당시의 <Collins' English Dictionary>에서는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1) 환각제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새롭게 변화된 감각이나 관능적 경험 및 이에 관련된 것을 말하고, 2) 환각효과를 내는 모든 마약, 특히 LSD를 의미한다. 3) 싸이키델릭한 시각효과와 관련된 선명한 색채와 복잡한 패턴을 지닌 무정형의 회화와 직물 디자인 등을 말한다<sup>2)</sup>(Fig. 1).

Gouldner는<sup>3)</sup> 1960년대의 싸이키델릭을 사회적인 일체의 요건에 대한 대항 문화로서 수단적인 정치보다 표현적인 정치에, 개인단위의 경쟁에 의한 일이나 업적 지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물, 섹스, 또는 새로운 공유적 사회형식들의 도움을 받아 성취되는 만족지향의 문화라고 보았다.



Fig. 1. Psychedelic design, Christian Lacroix, Italia Vogue, 1993, p. 70

싸이키델릭이란 젊은이들의 은어로는 "마음에 환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것"(something beautiful man, like it blows your mind)이라는 의미도 있는데<sup>4)</sup> 그 페인팅은 요란하게 혼합된 유기적 곡선을 야광에 가까운 밝고 선명한 색조로 표현한 것이었다. 인간의 통상적 이성을 초월하여 해방된 오감의 세계 즉, 내부로의 여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많은 록 콘서트나 이벤트들의 인공환경을 조성하는데 싸이키델릭 아트가 적용되었다.

히피는 사랑과 평화, 음악 외에도 반체제 운동, 기존윤리에서의 이탈, 현실의 도피를 위한 마약의 복용과 동양적 신비주의와 실존주의를 동경하였다<sup>5)</sup>. 이러한 문화풍토를 표현하였던 팝 뮤직이 싸이키델릭 록이었는데, 마약에 의한 환각을 연상케 하는 환상적이고 전율적인 사운드를 탄생시킨다고 하여 액시드 록(Acid Rock)이라고도 불렸다.

20세기말에 이르러 첨단과학이 빛을 획일화 사회에서 오는 개인의 무력감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을 가지고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nihilism( nihilism)적 성향을 보이는 뉴로 제너레이션(Neuro generation)<sup>6)</sup>이 60년대 싸이키델릭과 정신적 기저를 공유하고 있는 뉴 싸

이키델릭(New Psychedelic)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2. 싸이키델릭의 일반적 특성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의 파문도 심각했으나 60년대 후반, 모든 물질주의에서 이탈하고자 했던 젊은이들에게 있어 '마약 복용'은 '현실 도피'나 '의식의 확대'라는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힘을 표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방법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60년대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싸이키델릭 이미지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90년대에 적용시켜 신비성, 유희성, 착시성, 자아도취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 (1) 신비성

여행을 표현하는 단어가 'trip'인데 trip은 여행이란 뜻 외에 '마약을 흡입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는 실제로 지리적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마약의 도움으로 내면의 상징적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여행은 제3세계나 소수민족에 대한 신비함으로 표현되었다<sup>7)</sup>. Peter T. Furst<sup>8)</sup>에 의하면 고대 인디언에게 있어 환각적인 경험은 근본적으로 성적인 것으로, 환각초를 마시는 것은 영적 교합이라고 생각하였고 자궁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물이 시작된 그 곳에서 질서의 성립을 보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을 가속화 시켜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시간적, 공간적 무한성으로 도피하려는 낭만적인 청년기적 동경은 신흥 청년종교로 알려진 동양종교로의 귀의와 순례를 부추겼다. 그것은 '자아성취' '정신건강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졌으며, 신비한 관념론의 한 형태였다. 동양에 대한 환상과 괴기함, 신비로움, 정신성이라는 매력과 집단성, 후진성, 반민주주의, 야만성이라는 동시적인 얼굴을 가진 추상적인 동양성은 서구인들이 '자연'으로 도피하고자 할 때 꿈꾸었던 비역사적이고 원초적인 시공간으로서의 동양이라 볼 수 있다. Fig. 2는 Victor Moscoso의 작품으로 시각적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패턴들은 고대 인디언들의 의식에서의 나선형, 즉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가는 '여행'과 그 이후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여행, 즉 죽음과 재생에 대한 영

원회귀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1969년에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은 우주여행과 관련된 미래주의적 상상력을 자극하였고 과학기술과 결합된 신비주의를 부추겼다.

60년대와 마찬가지로 90년대에도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나 선불교의 서구적 이용, 기독교의 극단적인 원론주의 등 신비한 신앙주의에서 그 정신적 배경을 차용해 왔다. 세기말적 종말론이 팽배해진 오늘날에는 악마주의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포, 죽음, 폭력을 주로 노래하는 데스 메탈(Death Metal)이 록음악 태동 이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악마주의의 음악 논쟁의 화살을 받고 있다.



Fig. 2. Music Poster, Victor Moscoso,  
미술세계 1997, 2, p. 116

### (2) 유희성

싸이키델릭의 유희성은 Roser Caillois<sup>9)</sup>가 「놀이와 인간」에서 제시한 '현기증'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놀이를 경쟁, 우연, 가장, 그리고 현기증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현기증은 그리스어로 일링크스(Ilinx)라고 하며 물의 소용돌이를 뜻하고 현기증(Ilingos)이라는 말은 여기서 파생되었다. 일링크스란 현기증의 추구를 기초로 하는 놀이로서, 일시적으로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맑은 의식에 일종의 기분좋은 패닉(panic)상태를 일으키려는 시도로 이루어져 있다. 일링크스에서는 자기 몸의 안정

과 균형이 일시적으로 파괴되는 모습이나 지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 또 의식의 혼란을 일으키고 싶은 욕망들을 만족시킨다.

1960년대 하위문화의 경우 그들이 이용한 LSD도 현기증을 불러일으키지만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는 번쩍이는 조명과 넘쳐나는 듯한 색채, 율동적인 디자인과 패턴, 요란한 음악을 사용하는 싸이키델릭 댄스 홀이나 록 공연장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을 흔드는 경우가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뉴로 제너레이션(Neuro generation)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한 성취감보다는 여가를 통한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현실에 치중하여 미래지향적 개념인 자아 실현보다는 현실 만족의 자아노취적인 경향을 보인다. 불안정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하는 의식과 놀이는 인간 유기체가 기술을 사용하여 광란의 춤판인 레이브(rave)와 같은 하나의 단일한 네트워크적 전체로 계속되는 과정을 미학화하고 있다<sup>10)</sup>.

### (3) 착시성

싸이키델릭한 시각효과, 이와 관련된 선명한 색채, 복잡한 패턴을 지닌 무정형의 회화와 직물 디자인을 싸이키델릭이라고 할 때, 그 중 시각효과에서 보이는 시각적 특성의 대표적인 부분이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와 90년대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싸이키델릭 디자인에서 많이 응용하는 옴(Op)패턴 역시 그 시각적 효과에 있어서 일종의 환각(hallucination)인데, 그것은 안정된 감각보다는 시각적 움직임을 표출한다. Victor Vasarely<sup>11)</sup>는 그러한 움직이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즉 순수한 형과 색으로 세계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싸이키델릭한 조명의 물결, 빛, 색채, 소리들은 서로 어우러져 총체적으로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낼 수 있었다.

옴 아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즉 일상적인 시각이나 다른 형식의 예술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심리적인 과정이 눈을 통하여 뇌에 전달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는 점이다. 옴 아트의 대상물이라 할

수 있는 모아레(Moiré) 패턴은 일반적인 선의 나열 방식 혹은 선의 반복된 중첩, 기하학적인 형태의 반복과 겹쳐진 무늬를 통해서 얻어진 효과이다. 사전적 의미로 모아레 현상은 '물결무늬'란 뜻이며 이외에도 색상, 명암, 채도를 통해서 공간의 착각을 만들 수 있다.

### (4) 자아노취성

히피들은 규격화된 계급사회 생활을 이탈하여 그들이 만든 대체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은 미해결 상태'로 두고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하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는 실패는 정체성의 '위기'나 '소외'로 귀착되기 마련이었다.

Mike Brake<sup>12)</sup>는 히피문화를 분류하면서 '개인주의'적인 특성에 대해 사회 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너의 머리 속에서'의 자유를 믿고 '너의 고유의 것을 하라'는 개성주의를 강조하였다. Erich Fromm은 그가 쓴 「인간의 마음」(The Heart of Man)에서 자아노취(narcissism)의 의미를 개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허영', '자기 예찬', '자기 만족' 및 '자기 찬미' 그리고 집단에서 보여지는 민족적이든 인종적 편견이든지 간에 모든 형태의 편협성과 '광신(fanaticism)'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Christopher Lasch는 1960년대 이후의 폭력, 위험, 마약, 성적 문란, 도덕적·정신적 혼란의 분위기는 자아노취적 고뇌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sup>13)</sup>. 현대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자아노취적인 경향에 빠지게 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기존 권위의 붕괴, 그 중에서 특히 부모의 권위, 노동 윤리 및 도덕적 규율이 동시에 붕괴되는 데서 이러한 자아노취적 증후군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과거의 억압적 상태로부터의 해방이 현대 문화의 특징적인 유형들을 출현시켰다.

## 3. 싸이키델릭과 아르누보와의 상관성

Bevis Hillier<sup>14)</sup>는 싸이키델릭이 아르누보(Art-Nouveau)의 분신이라고 하였다. 19세기말에는 '세기말'이라 불리우는 시대사조(decadence), 즉 세계

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세기말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자극 받은 새로운 예술운동으로서의 아르누보는 유미주의(Aestheticism) 및 상징주의(Symbolism)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발달하였다.

아르누보는 산업혁명 이후, 싸이키델릭 아트는 2차 대전 이후, 즉 정보 혁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전자는 19세기의 산업 자본주의를 후자는 20세기 중반의 후기 자본주의를 물질 토대로 한다.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공통점은 급격한 산업화에 대한 젊음의 낭만적, 예술가적 반작용이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19세기에도 산업화의 반작용으로서의 미술공예운동이 고딕 취미, 리얼리즘에 대한 반동, 새로운 시대정신주의가 일어났었다. 그것은 19세기의 새로운 산업 대중 및 부르조아의 출현, 대중적 예술가와 모더니스트의 동시적 탄생을 알리는, 근대문화의 장에서 일어난 예술 형태이기도 하였다.

아르누보의 변형이 싸이키델릭리즘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계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획일화, 경직성, 무장식에 대한 반발이다. 또한 인간내면의 꿈과 상상의 세계를 '도취'로 볼 수 있는 환각상태를 표현했다. 이것은 환각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환각상태로 유도하여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적인 의식확대를 추구하여 이성적 사고의 초월과 오감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싸이키델릭과 60년대 문화의 전반적인 상



Fig. 3. Art Nouveau painting Paul Signac, Mordern Art, 1890, p. 54

황이 아르누보의 재부흥을 유발했던 것이다.

아르누보의 소재로는 꽃과 식물 그리고 여인이 대표적이며, 곤충이나 동물도 많이 사용되었고, 요정이라든가 인어, 동식물의 혼성체 같은 공상적 생물과 반인 반수에 이끌려 신비스러운 환상세계를 보여주고, 다소 방종한 관능적 이상화를 추구하며, 이미지를 통해 악마적으로 마술적인 유희의 세계를 보여준다. 신화적, 공상적 경향으로 흐르는 자기 탐닉적인 탐미주의와 세기말 현상인 데카당스(decadence)를 반영하고 있다. 아르누보의 예술가들이 직선을 피하고 소용돌이치고 교착하는 곡선(interlacing curve)을 주로 사용한 이유는 그러한 곡선을 통해서 자연 생물의 유동적 형태들을 표현

〈표 1〉 아르누보와 싸이키델릭의 상관성

| 시대        |         | 아르 누보   | 싸이키델릭  |
|-----------|---------|---|--|
| 발 생 배 경   | 사 회 적   | 산업 혁명 이후<br>19세기 산업자본주의   | 2차 대전 이후(정보혁명시대)<br>20세기 중반의 물질자본주의  |
|           | 사 상 적   | 동양의 영향(일본풍), 이국주의(Exoticism), 전원예칸, 19세기 산업화의 반작용으로서의 미술공예운동의 고딕취미, 리얼리즘에 대한 반동, 새로운 정신주의 | 고대 인디언 문화 황금시대에 대한 갈망, 역사와 진보주의에 대한 반항, 자연과 조화되어 살아온 소수 문화 및 제3세계 문화적 삶에 대한 동경 |
| 조 형 적 특 성 | 미 의 개념  | 괴기성, 장식성, 퇴폐성   | 신비성, 유희성, 착시성, 자아도취성   |
|           | 색 감     | 부드러우면서 환한 색조  | 자극적인 형광색   |
|           | 표 출 양 식 | 포스터, 상징주의, 유미주의 영향의 장식예술  | 포스터, Pop, Op Art의 대중적 장식예술   |
|           | 복 식     | S자 곡선 실루엣으로 러플, 리본, 레이스 꽃 등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환상적, 퇴폐적 표현  | 히피 스타일로 싸이키델릭의 자연물 이미지와 추상적 패턴을 혼합시켜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                               |

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려진 실제의 본질이나 자연의 창조활동의 무한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르누보의 곡선은 구불구불하고 물결치는 듯하며 음악적으로 울동하는 듯하고 타오르는 듯 섬세하며, 환기시키는 힘을 지닌 상징적인 선으로 나타났다(Fig. 3). 19세기말의 양식과 1960년대가 공유하는 미적 감수성으로서 괴기성, 자극적인 장식형태, 비물질주의, 비합리주의, 퇴폐성을 지적할 수 있다. 아르누보의 식물이나 꽃이 신비로운 환상세계와 관능적인 이상화를 상징하던 것에 반해 1960년대의 '꽃'은 신성한 환각제를 뜻하는 은유였다.

싸이키델릭한 스타일은 환각제의 영향 아래 잠재의식으로부터 미로와 소용돌이와 아라베스크 무늬를 갖는데 이는 아르누보를 적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르누보의 연한 색상을 없애고 번쩍이는 형광색으로 가득 채운 것이라 할 수 있다<sup>66)</sup>. 1967년 피코크(peacock) 혁명은 당시에 있었던 '싸이키델릭 붐(psychedelic boom)' 과 더불어 그 극치를 이루었다. 싸이키델릭은 색채 심리적으로도 모든 원색이 폭발된 싸이키(psyche)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의 분출과 해방된 상태를 볼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반체제운동의 물결이 전세계로 확산되던 중 특히 미군의 베트남 파병과 전쟁이 격화되었으며 그 가운데, 전쟁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은 알록달록한 색채로 몸을 감싸고 자유와 평화를 외쳤다. 그들에게 있어서 싸이키델릭한 색채는 자유롭게 해방된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전쟁이나 인종차별, 물질문명에 대한 절망 등, 현실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신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대한 반동 또는 도피로부터 만들어진 색채의 세계는 그 범위가 넓혀졌다<sup>67)</sup>.

1967년 Time지는 당시에 새롭게 선보인 싸이키델릭 아트에 대해 "20세기초에 유행했던 아르누보의 곡선 스타일이 되돌아와 그 능력이 텔레비전에서부터 카프탄의 프린트에 이르는 모든 그래픽 디자인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아르누보 곡선에 옵아트와 눈의 거슬리는 색채와 팝아트의 상업주의가 혼합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sup>68)</sup> 그 중심이 된 것은 Micheal English나 Niegel Waymath같은 이들의 포스터 아트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주도적인 예술형식의 하나였던 포스터는 싸이키델릭 아트가 가장 활발했던 장르로서, 록 콘서트나 이벤트 등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제작되었다(Fig. 4.)는 Milton Glaser의 포스터로 대답한 곡선은 너무도 격렬히 표현되어 있어 대상의 구도를 해체하는 듯이 보이며, 생명과 성적인 에너지를 암시하는 아롱거리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Fig. 4. Poster, Milton Glaser, 미술세계 1997, 1, p. 128

1960년대가 되면서 유행은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장식을 의상에 많이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고급자수, 비즈(beads), 브레이드, 레이스가 많이 부착된 화려한 복식은 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었고 아르누보 영향기의 복식에 사용된 직물을 보면 꽃 문양과 곡선 무늬가 많이 보이고 부풀린 소매가 약화되면서 장식심리는 모자로 옮겨지는데 모자는 조화, 깃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장식품으로 들고 있는 양산의 가장자리도 같은 레이스로 만들어졌다. 19세기 말에 S자 곡선으로 드레스의 실루엣은 심화되고 모자는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었다.

### III. 복식에 나타난 싸이키델릭 이미지

#### 1. 1960년대 싸이키델릭 이미지

싸이키델릭 패션은 싸이키델릭 록의 영향을 받아 환각제 체험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경향의 패션을 말한다. 60년대의 싸이키델릭리즘은 환각적인 시각과 청각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아르누보시대와 같은 양식의 장식적 효과를 지닌 디자인을 낳았다. 또한 당시 젊은 층에 만연된 마약문화와 함께 문양, 색상, 소재, 화장 면에서 싸이키델릭한 요소가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 (1) 신비성

히피는 자신들의 평화추구를 위해 비즈(beads)를 사용하였고, 민속적인 로브(robe), 푸른색의 데님(denim)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거나 가슴을 노출시켜 보통사람들의 자기 표현을 주장하였다. 히피들이 얼굴에 꽃 그림을 그리는 것도 주제는 다르지만 인디언 장식 스타일의 방법을 차용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인디언 테마를 복식에 사용하는 것은 인디언 마약에 대한 신비감과 인디언 자연주의에 대한 신비감을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다. 히피복식이 패션에 영향을 주어 1968년 이후 패션계의 관심은 과거와 동양문화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Fig. 5는 아르누보의 유기체적 식물 형태와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Fig. 5. 60's Mysticism, André Murasan, Radical Rags, 1990, p. 221

색감을 이용하고 있다.

우주시대의 비현실적인 미래적 의상들에 환상적인 싸이키델릭의 색상이 더해졌고 특히 네온이나 인공조명과 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형광 페인트인 데이글로(dayglo)의 사용, 사이버네틱(cybernetic) 사회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좋은, 미세한 표면효과를 창출하는 에어브러쉬(air brush)의 사용은 미래적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 (2) 유희성

유아기적 유희성은 성숙한 성인에게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데, Mary Quant<sup>10)</sup>는 어린시절의 추억이 'fun to wear' 패션을 디자인하는데 열정을 쏟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유아기적 의상은 복식형태의 과장과 왜곡, 변형 뿐 아니라 유아기적 착장과 장식, 동화적인 환상을 일으키는 프린트 등 유아적 순수성과 즐거움을 표현한다. 성인의복에 도입된 유아기적 요소는 일종의 놀이 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유희성에는 어느 정도 현실도피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성인들이 유아기의 놀이적 마음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던 Freud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1960년대는 싸이키델릭한 의상에 어울리는 장난스러운 화장, 소녀취향적 아동적 꽃 문양, 신체에 직접 칠을 하는 바디 페인팅과 같은 행위적 유희성과 더불어 전통적인 미국과 동부 인디언들은 바틱(batik)



Fig. 6. 60's Play, Rudi Gernreich, The Gernreich Book, 1967, p. 132

과 홀치기 염색(tie-dyeing)을 하거나 얼룩덜룩한 스프레이를 사용하였다(Fig. 6). 또한 인간의 피부가 벗기는 의복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미 육체를 오버체로 보고 여기에 직접 비닐, 플라스틱, 셀로판, 알루미늄, 금속 등을 사용하여 육체와 어우러진 새로운 패션을 창출하였고 형광염료가 섞인 강렬하고 환상적인 색채를 사용한 것에서 원시적, 유아기적 색채경향을 볼 수 있다.

#### (3) 착시성

직물의 감촉은 성적 금기의 몰락으로부터 유래한 LSD체험과 쾌락주의자의 도취감에 의해 야기된 최고조의 민감성의 단서가 되었다. '촉감이 좋은(feel-good)' 의복은 60년대 말에 패션의 모든 계층에 지배되었던 벨벳으로 구김효과를 내기 위해 직물 자체 기모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압축시켰다. 벨벳을 착용한 신체의 굴곡은 빛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의 색을 갖게 하였다. 당시 자유로운 신체를 감싸는 또 다른 직물로는 매끄러운 샤머즈(charmeuse)와 매트 저지(matte jersey)가 있었다. 사틴(satin), 다마스크(damask), 브로케이드(brocade), 보풀이 있는 크레이프(nappy crepe) 이런 소재들은 시각적으로 황홀감을 유발하였고 표면의 양감으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켰다.

의복은 빛의 굴절에 의한 착시를 일으키는데 투명하고 얇은 모슬린을 소재로 한 드레스로 인체의 움직임과 형태가 동시에 겹쳐지면서 생기는 표면에서의 시각적 어른거림을 통해서 인체의 외형을 해체시켰다. Rudi Gernreich는 여성들의 의상에 대해 기존의 형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바디 스타킹과 같은 액세서리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sup>20)</sup>. Fig. 7은 싸이키델릭의 소용돌이치는 듯한 물결무늬를 표현한 원피스이다.

#### (4) 자아도취성

Fig. 8에서처럼 1960년대의 꽃은 마치 원시 부족시대처럼 고대 시인들에게 있어서 꽃은 신성한 환각제를 뜻하는 은유였다. 싸이키델릭 록 가수들의 복장에서 보면 밝은 색상의 별무늬나 줄무늬를 사용한 상징적인 싸이키델릭 그래픽 프린트와 형클어진 긴 머리에 중고품 할인시장에서 산 듯한 모피, 깃털, 구식 모조 보석류, 얇은 새틴제의 드레이퍼리류나 레이스류 등 보다 독특한 의상을 착용하였고 이런 자아 도취적 코디네이션을 소녀 관중들은 모방하였다. Flügel<sup>21)</sup>은 여성 복식의 에로티시즘을 노출증과 자아도취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남성에게는 리비도



Fig. 7. 60's Illusionism, Rudi Gernreich, The Rudi Gernreich Book, 1967, p. 127



Fig. 8. 60's Narcissism, Francis Cellntino, 미술세계 1997, 1, p. 129



가 성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여성에게는 남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다른 부분을 노출하려 하기 때문에 여성 의복은 에로틱하다는 것이다. 또 여성은 인간의 성장과정 중 자기에 단계에서 발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기의 외양에 관심을 갖게되어 신체보다 의상에 더 집착하게 되는 자아도취에 빠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온몸으로 해방된 육체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바람이 히피 공동체 내에서도 여러 행사들에서 남녀의 거리낌 없는 상반신 노출, 또는 전라(全裸)로 표출되기도 했다.

## 2. 1990년대 사이키델릭 이미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허무와 절망은 오늘날 현대인의 양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들로 현대인의 인간상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가운데는 불안, 고독, 회의, 모순, 부조리, 체념 등으로 인해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여기는 니힐리즘(Nihilism)<sup>22)</sup>적 현상이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고독의 감상이 짙어지면 자아에 대한 일종의 우울감에 도취하게되는 자아도취(Narcissism)<sup>23)</sup>에 빠지게 된다. 90년대 사이키델릭리즘은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어 환각적, 도피적 이미지가 복식에 반영되고 있다.

### (1) 신비성

우주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서 19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뉴 에이지(New Age) 패션은 마찬가지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 하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에콜로지(eco)와 유사하지만 자연에서 모티브를 따거나 민속적인 경향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기존의 에콜로지와는 달리, 뉴 에이지 패션은 메탈, 스파덱스와 비닐가공소재 등을 사용하여 우주의 신비한 아름다움과 힘을 표현한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안티 패션(Anti-fashion)이라 할 수 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더 중요시하며 초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흰색과 메탈릭(metallic) 소재의 은색 사용이 두드러졌고 모든 에너지를 끌어 모은다고 믿는 크리스탈 목걸이, 영적인 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자주 사용하였다. 뉴 에이지 운동에 있어 고대적, 토착적인 영성의 전통을 찾으려는 다소 숭

고한 시도는 그 뿌리를 환각제의 천국이었던 1960년대에 두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신비성은 세기말적 악마성과 공포와 퇴폐성을 통해서 인간에 내재하고 있는 자기 혐오적 심리적 환각상태로 몰입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Fig. 9). 이러한 드라큘라같은 악마적 이미지가 강조된 Goths<sup>24)</sup> 패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Fig. 9. 90's Mysticism Thierry Mugler, Fashion News97~98 A/W, p. 51

### (2) 유희성

60년대의 사이키델릭 패션이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바탕으로 한 패션이라면, 90년대 뉴로(neuro) 패션이 차용한 형태는 그러한 배경들이 배제되어 무겁지 않은 밝은 양상을 띄고 있다. 에스파니아 해안 지방의 클럽들을 중심으로 히피적인 취향을 가진 여피(Yuppy)들에 의한 쾌락주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런던의 중산층 청소년 계층으로 파급되었고, 클럽에서 새벽까지 춤추며 즐기는 이 집단을 떠들썩한 파티를 의미하는 '레이버'(raver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은 춤추기 편하게 크고 헐렁한 의복을 즐겨 입었는데, 스마일 마크(smiley mark)나 사이키델릭 문양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들은 'Acid'(마약), 'Acid House'(음악)를 탐닉하며

1988년 리바이벌 된 'The Summer of Love'에 열광하였다(Fig. 10). 반면 노동자계층이 주류를 이루었던 북부지역의 레이버들은 통이 넓은 청바지와 모자 달린 셔츠를 입는 방랑풍을 선택함으로써 강한 이미지의 지역적 독자성을 보여주었다<sup>27)</sup>. 여기에는 마약, 음악, 조명으로 모든 사람을 집단적 황홀경 상태로 몰아가 거대한 유기체 속에서 그들만의 동조의식을 체험하고자 하는 기대감이 함께 한다.

(3) 착시성

60년대의 복식에 착시성이 단순히 Op Art의 패턴 도용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90년대는 Op Art 패턴

뿐만 아니라 사이버(cyber), 테크노(techno)적인 미래 소재 느낌의 gold와 silver 혹은 광물의 고풍택 표현이 부가적으로 직물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체의 울동감이 의상에서 보여진 색채의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는 심리적 혼합방식을 통해 인체가 가지는 뚜렷한 윤곽선을 해체시킴으로써 의상을 통한 움직임의 보여준다(Fig. 11). 뉴로 제너레이션은 점차 획일화되어 가는 사회 흐름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상식을 초월하는 옷을 착용함으로써 불확실하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내면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들이 선택한 패션, 즉, '무작위 코디네이션'을 기



Fig. 10. 90's Play, Street Style, 1994, p. 117



Fig. 11. 90's Illusionism. Style Surfing, 1996, p. 80

〈표 2〉 복식에 나타난 싸이키델릭 이미지

| 시대<br>특성 | 1960년대 싸이키델릭 이미지   | 1990년대 싸이키델릭 이미지                               |
|----------|--|--|
| 신비성      | 마약에 의존하여 내면의 상징적 여행, 제3세계 소수민족에 대한 환상, 우주여행으로 미래주의적 상상력 자극 | 컴퓨터와 멀티미디어의 가상공간에 대한 환상<br>세계적 종말에 대한 악마주의 퇴폐성 |
|          | 민속적인 의상, 우주시대를 상징하는 메탈릭 소재                                 | New Age 패션, Goths                              |
| 유희성      | 현기증적 현상, Rock 공연장  |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부상                               |
|          | 소녀취향석 화장과 바디페인팅  | Ravers, New Psychedelic                        |
| 착시성      | 시각적 환각 이미지를 일으키는 Op Art와 상업성의 Pop Art 대두                   | 카오스적 혼돈 상태                                     |
|          | Op Art문양과 광택 있고 매끄러운 직물로 시각적 착시 유발                         | 무작위적 코디네이션, 다민족적 패션 경향                         |
| 나르시시즘    | 개인주의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몰두로 위기와 소외에 대한 불안                         | 종말론적 불안에서 야기되는 현실도피성 쾌락주의 추구                   |
|          | 노출증  | 신체에 대한 관심 집중                                   |

존의 세대가 캐릭터 중심의 코디네이션에 대한 제약에 따른 개성연출을 시도했다면, 뉴로 제너레이션들은 스스로의 선택을 중시하여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착용하는 자유로움을 보여준다.

#### (4) 자아도취성

색채에 있어서도 60년대 말에는 사이키델릭 컬러를 사용하여 현란한 느낌을 주었으나, 90년대 초의 패션에서는 사이키델릭 컬러의 사용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차분한 색으로 검정과 흰색의 모던한 네오히피룩(neo hippy look)을 표현하였다. 문양에 있어서 60년대 히피 스타일에는 다양한 꽃무늬가 많이 등장하였다(Fig. 12)는 97~98 A/W 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에서 보여진 Christian Dior의 작품으로 꽃의 환각적 이미지와 세기말적 자아도취를 표현하고 있다.

노출증을 남녀의 차이에서 근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남성복식 또한 성기 이외의 신체부분을 강조해왔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도취의 정의가 자신에게 에로틱한 초점을 가지고 타인과의 유대를 갖지 못하는 성격적인 불안증세라는 점에서, 의복에 관한 관심이나 허용은 자아도취



Fig. 12, 90's Narcissism, Christian Dior, Fashion News, 97~98 A/W p. 20

와는 별개라는 반박도 있다<sup>26)</sup>. 그러나 대중교통이나 스트레스, 공해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트레스나 자외선, 박테리아를 방지하는 소재가 각광을 받을 정도로 인체가 의상을 대신 하게 되고 의상은 점점 몸을 강조하고 부각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정신에 비해 하위개념으로 여겨지던 육체에 대한 관심은 현대인의 자아도취적 성향을 가장 극렬히 표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1960년대를 배경으로 생겨난 사이키델릭은 히피의 정신적 기저로 자리잡고 있던 마약문화와 장식예술로서의 개념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20세기말에 그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뉴로 제너레이션의 문화가 1960년대 사이키델릭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해왔음을 밝히기 위해 사이키델릭의 일반적 특성을 신비성, 유희성, 착시성, 자아도취성으로 살펴보고, 20세기말에 나타난 뉴로 제너레이션의 양상과 1960년대 사이키델릭 이미지와 유사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Bevis Hillier가 사이키델릭이 아르누보의 분신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사이키델릭의 기원인 19세기말 아르누보의 특성을 발생 배경과 조형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서 사이키델릭과 함께 그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는 1960년대와 199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80년대부터 복식에 있어 retro의 열풍으로 인한 뉴 사이키델릭의 등장으로 90년대말에 세기말적 패션의 현상의 사이키델릭 이미지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그 정신적 기저에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와 1990년대에 복식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이미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비성은 60년대는 인디언과 같은 제3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민속적인 의상을 입고 인디언 장식 스타일의 방법을 차용하였다. 우주시대의 비현실적인 미래의상들에 환상적인 사이키델릭의 색상이 더해졌으며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주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인 New Age 패션과 더불어 세기말적 악마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둘째, 1960년대 유희성은 소녀취향적 아동적 꽃 문양, 바다 페인팅 같은 행위적 유희성과 신체자체를 조형물의 오브제로 보는 소재를 이용해서 환각성을 일으킨다. 이에 반해 90년대는 ravers의 등장으로 'smile' 문양의 T-shirts를 입고 마약과 환각성 음악에 심취하는 뉴 싸이키델릭이 등장하였다.

세째, 착시성으로 60년대는 Op-Art의 문양을 의복 패턴으로 이용하고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 직물로 인한 빛의 반사효과를 이용하여 황홀감을 일으키고 90년대는 60년대의 회귀 일뿐 아니라 다민족적 패션 경향의 무작위 코디네이션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도취성은 노출증과 함께 에로티시즘으로 표현되는 데, 60년대는 여권운동영향으로 가능한 적게 입고 자연스런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났으며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온몸으로 해방된 육체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바람이 커졌고, 90년대에는 의상보다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애정과 집착으로 표현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오오키 고오스케, 박희준(역), 마약·뇌·문명, 정신세계사, p. 42, 1991.
- 2) Bevis Hillier, 조규화(역), 20세기 양식, 수학사, p. 246-247, 1993.
- 3) Alvin W. Gouldner, 김쾌상 역, 현대 사회학의 위기, 한길사, p. 107, 1982.
- 4) Michael and A. Batterberry,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New York, Greenwich House, p. 76, 1997.
- 5) 조승호, 레코드 잭트 디자인의 시대적 고찰-1960년대 이후 미국, 영국의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8, 1987.
- 6) Neuro의 사전적 의미는 '신경상의' 혹은 '신경계의'라는 뜻이며 공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에 응용한 이론 '뉴로'가 이용되고 있다. 뉴로 제너레이션이란 불확실하고 확고한 고정관념이 없으며 비구조적, 비조직적임과 동시에 자아도취적이고 순간적인 세대를 일컫는다. Fashion Today, 96년 4월, p. 50.
- 7) 간문자, 저항 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히피풍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57, 1995.
- 8) Peter T. Furst, 김병대(역) 환각제와 문화, 대원사, 1992.
- 9) Roser Caillois, 이상률(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pp. 35-55, 1994.
- 10) Douglas Rushkoff, 김성기, 김수정(역), 카오스의 아이들, 민음사, 1997.
- 11) Cyril Barrett SJ, Op Art, 정미희 역, 미진사, pp. 7-22, 1992.
- 12) Mike Brake,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 and youth Subcultures, London, Routledge Kegan Paul Ltd., pp. 101-102, 1980.
- 13) Christopher Lasch, 최경도(역), 나르시시즘의 문화, 문학과 지성사, p. 23.
- 14) Bevis Hillier,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London, The Herbert Press, p. 223, 1983.
- 15) Lqurence Buffet-Chqllié, The Art Nouveau Style,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p. 9, 1982.
- 16) 세계미술용어사전, 3판, 중앙일보사, 1992, 사이키델릭 항목.
- 17) 末永蒼生, 色彩トレンド '90s, 東京:プレジデント社, p. 117, 1991.
- 18) Time, Nouveau Frisco, April, 7, pp. 44-47, 1967.
- 19) Grave, J., Fashion, London, Macmillan, p. 44, 1973.
- 20) Joel Lobenthal, Radical Rags - Fashions of the sixties, New york: Abbeville Press, pp. 219-220, 1990.
- 21) Valerie Steel, Fashion and Erot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 p. 28, 1985.
- 22) Johan Goudsblom, 천형균(역), 니힐리즘과 문화, 문학과 지성사, p. 304, 1988.
- 23) 김용옥, 현대인의 허무와 절망, 민예사, p. 233, 1986.
- 24)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pp. 97-99, 1994.
- 25) Ted Polhemus,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pp. 115-117, 1994.
- 26)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N. Y. Oxford Univ. Press, p. 29, 1985.